

관광회사들 입찰 땐 새차… 출발땐 헌차

## 수학여행 버스 바꿔치기

### 전세버스업체 차량등록증 위조도

본격적인 소풍·수학여행철을 맞아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여행사 및 전세 버스 업체 간 입찰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은 입찰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버스 연식을 최신형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증까지 위조하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대형 사고 발생시 실제 학생들의 탑승 버스와 계약 버스가 달라 보상 분쟁의 가능성에 쟁점이다.

광주시 북구 D 관광여행사와 R 전세버스 업체는 이달 초 광주시 모초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위탁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2007년과 2008년에 생산된 신형 버스 8대를 배정하겠다고 공동 제안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이 학교 학생 274명에게 배정된 버스는 2003년형 1대, 2004년형 1대, 2005년형 3대 등이 포함됐으며, 제안서와 일치하는 2007년형 버스는 3대에 불과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출발 당일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R 전세버스 업체에 비관 버스의 차량등록증 사본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수학여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버스는 일정대로 출발시켰다.

특히 R 전세버스 업체는 이 과정에서 2006년형 광주7X바 1XX6호와 2008년형 광주7X바 1XX0호 버스의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했지만,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대조

기도 했다"며 "여행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초·중·고교의 수학여행과 소풍이 4~5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지만 차량은 한정된 테다 기름값 까지 친환경으로 올라 사정이 어려워 진 전세버스 업체가 고육지책으로 입찰서류를 하위로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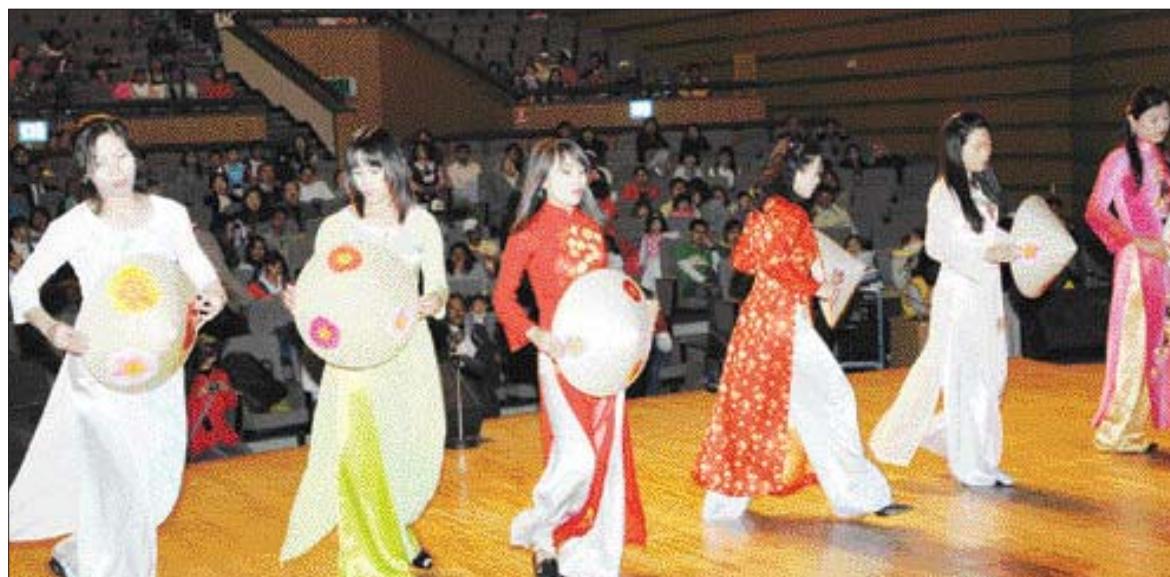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위탁운영업체들이 업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후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차량 연식을 위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세버스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11년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차량 연식을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해본 결과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생산된 버스의 차량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초·중·고교 30여 곳의 수학여행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돼 8천 145명의 학생을 수송했다.

R 전세버스 업체 K 대표는 "차량등록증을 위조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이날만 해도 3곳의 학교에 수학여행 차량을 배차했지만 모든 학교가 신형 차량 연식을 위조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다른 차량을 배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차량 바꿔치기 행위는 비단 한 업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주시 동구 A 여행사에 근무하는 K씨는 "내가 일하는 업체에서도 지난해 제안서 서류를 위조해 입찰에 참여하



이주민 한마당 잔치

27일 광주시 광산구 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주민 공동체의 날'에서 전통복장을 차려입은 베트남 여성들이 베트남 전통 춤인 '모자 춤'을 추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성빈여사' 원생 폭행 있었다

### 前 원장·사무국장 등 수사 마무리…검찰 송치

광주동부경찰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아동복지시설 '성빈여사' 관계자 12명에 대해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남 전 원장을 제외하고 사무국장과 지도원들에게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으나 제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수사를 진행했다.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 전 원장은 한 차례, 사무국장은 세 차례, 생활지도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동안 남 전 원장을 제외하고 사무국장과 지도원들에게만 아동학대 혐의를 부당하고 공방은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예산감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시민단체들은 지도감독기관인 광주시와 동구청, 운영주체인 YWCA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에게 사직서를 요구하고, 새 지도사를 체용했었다.

이에 해고된 생활지도사들은 남 전 원장이 '사적인 이유로 마찰이 있던 지도사들에게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씌워 부당해고했다'며 원장 퇴진과 공개사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해왔다.

경찰의 수사는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동학대에 부당하고 공방은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예산감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시민단체들은 지도감독기관인 광주시와 동구청, 운영주체인 YWCA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체 상태 경찰까지 폭행 '만취 난동'

○…만취상태에 서 택시를 탄 30대 승객이 택시기사

를 때리고 이를 제보한 행인, 경찰관 등을 모두 때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30)씨는 27일 새벽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친구 3명과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에서 내려 택시기사 배모(44)씨를 때렸다는 것.

○…A씨는 또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 이모(33)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운암지구대 경찰관 3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직장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른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빈집 털고 내집처럼

#### 20여일간 숙식 2인조 불잡아

빈집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며 금품을 훔친 절도범들이 집에 돌아온 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불잡혔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안모(27)씨 등 2명은 지난 7일 낮 12시께 광주시 남구 서동 최모(62)씨의 주택에 들어가 귀금속, 의류, TV 등 시가 1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였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 등은 죄수 부부가 사업문제로 서울에 간 사이 집에 들어와 금품을 훔쳤으며,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이에 이 집에서 20여일간 머물며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25일 오후 집에 돌아온 후 아무도 없었지만 쌈이 줄어들었고 집안이 어질리져 있는 등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짐작했다. 최씨는 일단 현장을 피해 동생 집에 있다가 밤이 되자 절도범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이들을 불잡았으며,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책값 타쓰기 뭐해서

#### 토익책 훔친 취업재수생 눈물

"대학까지 졸업시켜준 부모님께 더이상 '책값을 달라'는 말은 깔릴 수가 없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인 김모(27)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모 서점에서 9만여 원 상당의 취업관련 서적을 훔쳤다가 경찰에 불잡혔다. 김씨는 훔친 서적을 신문지로 덮어씌운 뒤 문을 나서려던 서점 관계자에게 현장에 서 적발됐다. 신문지 안에는 영어사전과 토익문제집 등 취업공부에 필요한 책 6권이 들어있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학도서관에서 1년 넘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며 "시골에서 농사를 짓으시며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께 더 이상 책값을 달라고 말하기가 힘들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또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책을 훔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한 번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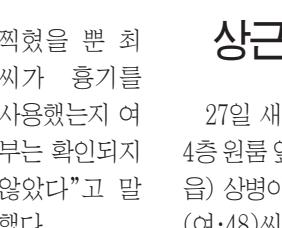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최민수씨 노인 폭행

#### 흉기 사용 확인 안돼

영화배우 최민수(사진)씨의 노인 폭행 위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사건 현장 주변의 CC(폐쇄회로)TV를 분석했으나 최씨의 흉기사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는 최씨와 피해자가 함께 차 안에 있는 모습만



찍혔을 뿐 죄 씨가 흉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 목격자 진술로도 흉기 사용 여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새로운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후 최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상근예비역 주락사

27일 새벽 5시께 강진군 강진읍 한 4층 원룸 앞길에 오모(21·강진군 강진읍) 상병이 숨져 있는 것을 행인 최모(여·4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육군 31사단 상근예비역인 오상병은 전날 부대에서 퇴근해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옥상 난간 외벽에서 죽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오상병이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주)조이트래블**

광주광역시 북구 충장로 179번길 2  
대표번호 (062) 234-3222  
팩스 (062) 234-3241

기획 노하우  
트래블 톡톡!!

전세기 티켓 + 10원! 10월 25일

305,000원

**나우침**

2008년 4월 28일 월요일

제18046호 7

기획자 김종두 (7492)

내용

그대는 그대면 너무 가혹하고...  
그대는 그대면 너무 가혹하고...  
이거 참아도 못내겠지?

다른 날 다른 날에  
동사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

**나우침**

2008년 4월 28일 월요일

제18046호 7

기획자 김종두 (7492)

내용

그대는 그대면 너무 가혹하고...  
그대는 그대면 너무 가혹하고...  
이거 참아도 못내겠지?

다른 날 다른 날에  
동사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

329,000 ~

399,000 ~

349,000 ~

629,000 ~

429,000 ~

399,000

기획자 김종두 (7492)

내우침 톡톡!!

**나우침**

2008년 4월 28일 월요일

제18046호 7

기획자 김종두 (7492)

내용

1. 이트리 일주 8일 1,490,000  
2. 청유월 5개국 11일 2,090,000  
3. 태어면서 농주·죽·청요연 2회 운행 19,000  
2. 대만 / 아류 / 화롄 4일 630,000  
화국 태국  
기획자 김종두 (7492)

내우침 톡톡!!

내우침 톡톡!!

내우침 톡톡!!